“쉽고 재미있는 불교”… 어린이와 함께 30년

교계 유일 레크리에이션 단체 불레협 30주년 기념행사 준비

1985년 7월 1일 창립
3만여 지도자 강습받아
전국 사찰 어린이법회서 활용
7월 바자회 · 12월 자료집 발간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를 슬로건으로 지난 1985년 창립한 불레협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사찰에 가고 싶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불교에 흥미와 재미를 더해 알려줘야 한다.

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회장 혜만, 이하 불레협)는 교계에서 유일하게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불교를 쉽고 재밌게 포교하기 위해 정진해온 단체다.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를 슬로건으로 지난 1985년 창립한 불레협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불레협은 2월 13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30주년 기념계획을 밝혔다.

불레협은 지금까지 율동강의, 음악지도법 등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과정을 통해 3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는 전법단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여름 · 겨울불교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2015년 현재까지 54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3만 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해 어린이 · 포교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1994년 7월에 실시한 어린이 여름 캠프는 교계에서 불교 어린이 캠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지도자들에게는 규모가 큰 어린이 캠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맛볼 수 있는 교육의 실습장으로서 지도자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볼 수 있었으며 성장의 계기가 됐다.

특히 사찰과 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단체들의 법회 및 행사, 사찰 여름 · 겨울불교학교 및 수련회 실시 등을 기획하고 지도자를 파견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법회 활성화와 포교의 전법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불레협은 온라인 활동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2000년 다음카페(cafe.daum.net/burec)을 개설하고 2004년 홈페이지(www.burec.org)를 오픈해 보다 많은 지도자들에게 다양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수도권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운영, 법회개설지원, 어린이법회 및 영유아 지도자 교육지원, 어린이 찬불율동제, 전국어린이연꽃노래잔치, 연꽃어린이 연합캠프, 불교레크리에이션 자료집과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연등축제 율동을 기획하고 율동리더로 참가해 연등축제에 활력을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율동리더로 청년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불레협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30년간 협회 활동 자료와 교재 교구 등을 포교활동 후원기금을 마련하는 ‘30주년 기념 후원기금 바자회’를 연다. 또한 12월에는 자료집 발간을 기념한 30주년 기념법회와 제13 · 14대 회장 스님 이 · 취임법회도 거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까지 꾸준한 정기문화강좌를 실시해오던 불레협은 올해부터 강좌를 다시 연다. 교리전달법, 공예체험, 찬불가 지도법, 놀이와 게임을 법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1회 정기적으로 개강할 방침이다.

이사장 혜만 스님은 “불교레크리에이션은 시대에 맞는 포교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됐다. 2015년에는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이 더욱 다양하게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행장학회, 2015 장학금 수여

학생 34명에 7900만원 전달…“참된 사람되길”

한마음선원 대행장학회는 2월 15일 한마음선원 본원 법당에서 ‘2015 대행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한마음선원 본원을 비롯한 전국 지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34명에게 총 7900만원이 전달됐다.

한마음선원 대행장학회는 2월 15일 한마음선원 본원 법당에서 ‘2015 대행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한마음선원 본원을 비롯한 전국 지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불자 34명에게 총 7900만원이 전달됐다.

대행장학생은 최현준(서강대 2)외 13명이, 한마음장학생(대학생)은 구지윤(덕성여대2)외 4명이, 한마음장학생(고등학생)은 김의림(개포고 3)외 14명으로 이들은 각각 2~3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

대행장학회는 대행 스님이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돼라”는 뜻에서 2006년 설립되었으며, 장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장학회측은 대행 스님과 여러 후원자분들의 뜻을 마음 깊이 받아 지녀 학문뿐 아니라 정신세계에서도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참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올해 사관생도 3명 중 1명은 불자

육해공군 불자생도 377명 배출

육 · 해 · 공군 사관학교 졸업생도 1100여 명 가운데 불자생도가 3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군 사관생도 졸업생 중 불자생도 비율은 35%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한 수치다.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 등은 2월 5일과 10일, 11일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각 군 사관학교 졸업법회에는 육사 76명, 해사 75명, 공사 46명 등 총377명의 불자졸업생도가 각각 참석해 신임 불자장교로서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해사 졸업법회에서는 졸업생도 142명 중 절반 이상인 75명이 불자생도였다. 군종특별교구는 그동안 사관생도 신행활동을 장려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군종특별교구는 “각 부대 군법사를 통해 불자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법회활동 참여 권유 등을 통해 초임 불자장교들이 신행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마음강좌 통해 내안의 공동체 찾는다

인드라망, 3월 5일부터 ‘심심학교’ 개강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3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자존감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마음강좌 ‘심심(尋心)학교’를 진행한다.

심심학교는 마음을 살펴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자존감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이다. 강의는 도법 스님을 비롯해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회 지도법사, 김영옥 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장, 김중묵 귀정사수련원장, 김점란 붓다의대화 연구소장 등이 진행한다.

인드라망은 “대립과 갈등, 경쟁과 소외를 벗어나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심심하는 지도한다”며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의 삶의 변화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심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9시30분 양천구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일반 40만원이다. 02)576-1886

신성민 기자

미붓아카데미, ‘유마경’ ‘유식불교’ 강좌 개설

서울 종로에 새 공부방을 마련한 불교 · 인문학 공부모임 ‘미붓아카데미’가 3월을 맞아 새로운 강좌를 진행한다.

미붓아카데미(대표 이학종)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박상준 前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을 강사로 3월 3일부터 총 16강에 걸쳐 ‘유마경’ 강의를 개최한다. 수강료는 월 5만원.

이와 함께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목경찬 불광교육원 전임강사를 초청해 3월 6일부터 총 12강에 걸쳐 ‘유식불교의 이해’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료는 월 5만원이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이 진행하는 ‘최고의 한문명문’ 강연도 진행된다.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소동파의 〈전적벽부〉, 백낙천의 〈비파행〉 등이 주제다. 미붓아카데미의 모든 강좌는 16명 선착순 모집이다. (02)739-5557

노덕현 기자

봉은사, 문화 · 신행 도량으로 거듭난다

3월 5일 금강경 3년독송 입재 최초 사찰 국악합주단 창단 중국어 홈페이지 신규 개설

최근 9호선 봉은사역 지명 지정 등 서울의 불교 대표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봉은사가 2015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봉은사(주지 원학)는 2월 13일 국악합주단 창단 및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기도 입재 등 문화 · 신행 포교 도량으로서의 발전계획을 밝혔다.

먼저 봉은사는 불교계 최초로 사찰 직속 악단인 봉은사 국악합주단을 창단할 계획이다. 이는 종단 차원의 불교음악원 설립에 발맞춘 것으로, 봉은사 국악합주단은 영산회상을 비롯하여 전통불교음악 및 예불의식음악과 찬불가 연주 등 다양한 불교음악을 연주한다.

봉은사는 그동안 피아노가 중심이 되어 연주되었던 찬불가를 국악기로 연주함으로서 불교음악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학 스님은 “최초로 창단될 사찰 전속 국악합주단의 연주활동은 불교음악의 발전과 불교 포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불교음악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봉은사는 국악합주단 단원을 선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신행사찰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금강경 3년 독송 대정진에도 들어간다. 봉은사는 이미 42대원 다라니 3년 기도를 2011년 입재해 최근 회향 한 바 있다. 3월 5일 입재하는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은 매달 음력 보름 오후 1시 진행된다. 이 시간동안에는 산문이 닫히며, 경내 모든 대중이 함께 ‘금강경’ 3독을 진행한다.

또 동참자들은 기도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매일 3독씩 기도회향 때까지 총 3,000독을 하게 된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금강경’의 핵심은 지혜의 완성으로 생각이나 관념이 타파되고, 얼매임이 없고, 차별을 두지 않고, 집착과 견해가 끊어진 상태”라고 강조하며, “‘금강경’을 독송해 삶을 여유자적하게 하는 반야 지혜를 증득하길 바라다”고 말했다.

금강경독송 3년 대정진기도는 상시접수로 가입비 10만원, 둘째 달부터 매월 2만원씩 동참금으로 접수를 받으며 동참자에 한하여 기도책, 주머니, 금카드의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봉은사는 최근 중국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중국어 포함 템플스테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봉은사 템플스테이 전용홈페이지는 국문, 영문, 중문으로 구성되며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디자인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또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봉은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와 연동해 쌍방향에서 접수, 예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보련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